

군산 인구 '증가세 전환'

6월말 기준 26만 6389명 전달보다 44명 늘어

군산시는 재생에너지와 군산형일자리 중심의 산업구조 개편에 성과를 내면서 인구 추이가 증가세로 전환되고 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6월말 기준 군산시 인구는 26만 6389명으로 전달 대비 44명이 늘었다.

이번 인구는 소폭으로 증가했지만 수도권의 인구 집중 현상에 지역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을 고려하면 고용·산업위기지역인 군산의 인구 증가는 이례적인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인구 증가 원인을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미래 산업으로 개편한 성과로 보고 있다.

새만금에 세계 최대 규모의 재생에너지 단지 조성되고 국내 최초의 스마트그린산단이 지정되면서 기업들이 입주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

또 군산형일자리 일환으로 산업단지 내 전기차 생산단지가 조성되면서 젊은층 인구 유입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경기침체로 인

구가 감소했던 어려움이 있었지만 재생에너지와 전기차를 중심으로 미래 성장을 견인할 기업이 유치되면서 지역에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만큼 현재의 기회를 잘 활용해 다양한 시책 발굴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모든 세대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시민과 인구정책 소통 피드백을 강화하고 인구정책 T/F 등을 운영해 인구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군산=한경봉 기자

군산시, 지역혁신으로 로컬브랜딩 이끈다

행안부 주관 혁신 컨설팅

군산시는 지역혁신 전략 마련을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행정 혁신 컨설팅을 진행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날 컨설팅에서는 지역혁신 우수 사례 공유와 정부 혁신과제 중 군산에 접목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 검토했으며, 혁신 전문가와 참석자 간에 다양한 질의답변이 이어졌다.

특히 주민역량 강화 및 참여 확대를 통한 정책화 방안,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조직 내 협업문화 조성 및 타기관의 역량 및 자원 공유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집중적인 컨설팅을 진행했다.

컨설팅 위원은 "군산시가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골목뉴딜을 중심으로 혁신적인 경제정책을 주도한 점을 높게 평가한다"며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혁신을 통한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시는 관련 부서 실무회의를 통해 이번 컨설팅 내용을 적극 반영한



군산시는 지역혁신 전략 마련을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행정 혁신 컨설팅을 진행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활성화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며, 협치형 민간위탁 활성화, 지역 자산화 사업 등 다각적인 혁신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산=한경봉 기자

익산시, 해동환경 불법 매립 폐기물 처리 완료

익산시가 해동환경 폐석산 내 불법 매립된 폐기물 5톤의 처리를 완료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진행한 부작정폐기물 이적을 위한 행정대집행을 마무리했다.

시는 국비 64억원을 포함한 총 9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60일만에 해동환경내 폐석산에 불법 매립한

부작정폐기물 5만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완료했다.

시는 당초 7월말 목표로 폐기물 처리를 진행해 왔다.

시는 해동환경 부작정폐기물 처리를 위해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시와 환경부는 올해 45개 부작정업체를 관리하는 28개 행정청의

행정대집행 권한을 시로 일원화했다.

한편 익산시는 근본적 처리방안 마련을 위해 정현을 시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남산지역 주민대표, 환경부·전라북도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남산 폐석산 민간공동위원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시는 2022년도 행정대집행 예산 110억원 확보를 위해 정부의 협력과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김재훈 기자

군산시, 상하수도료 감면 연장

코로나19 장기화로 6개월 연장 12월까지 인상 유보

군산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시행하고 있는 상수도요금 감면 및 하수도요금 인상 유보를 별도의 신청 없이 6개월간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연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있어 가정용을 제외한 전 업종으로 확대해 상수도 사용료를 연장 감면하고 관공서 및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오는 8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일반용 및 목욕용 수용가는 상수도 사용료를 구별별 기본요금 전액과 사용 요금의 30%를 감면하고 선박용과 공업용 수용가에게는 구별별 기본요금 전액과 사용 요금의 10%를 감면한다. 단, 공업용과 일반용이 같이 부과되는 수용

가의 경우 일반용은 감면에서 제외하게 된다.

또한 일반용과 욕탕용 수용가의 하수도 사용료는 7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인상 유보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감면액은 상수도 수용가 12,000여 개소에 23억원, 하수도 수용가 11,000여 개소에 14억원으로 총 37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사업장에 실질적인 행정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시민들의 백신 접종 협조와 철저한 방역 수칙 이행으로 빠른 시일 내에 지역 경제가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고병만 기자

서울시립대 이익주 교수, 새만금아카데미 2강좌

군산시는 시민 대상으로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열린 배움터! 군산새만금아카데미 2강좌를 군산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서 오는 22일 오후 7시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좌는 서울시립대학교 이익주 교수를 초청해 '정보전 위기를 기회로 만들다'라는 주제로 강연이 진행된다.

이 교수는 서울대학교 역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한국역사연구회 회장, 서울시립대 역사학과 교수로

재직중인 대한민국 최고의 고려사 전문가다. '차이하는 클래스', '역사 저널 그날' 등 다수의 방송출연으로 우리에 많이 알려졌다.

새만금아카데미 참여 방법은 코로나19 전역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21일까지 사전예약(80명/선착순 454-2602~6)을 해야 하며 코로나19 백신 1차접종 후 2주 경과자는 접종 증명서 지참시 사전예약 없이 120명까지 현장 입장이 가능하다.

또한 현장 참여가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유튜브('군산시 검색')로 강연 당일 오후 7시부터 실시간 생중계 할 예정이며 금강방송(KCN)에서도 녹화 방송에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군산=남현봉 기자

원광대 정경아씨 국제학술대회 우수포스터상

원광대학교는 정경아(식품생명공학과 석사과정)씨가 한국식품과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우수포스터상을 받았다.

지난 16일 원광대에 따르면, 한국식품과학회는 국내 식품과학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 학술단체로 1968년 창립해 학술 활동 규모와 회원 수 등 한국연구재단 등재 300여개의 학회 중 최상위권에 속해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코로나19 여파에

도 온·오프라인을 통해 2053명이 참여했다.

발표 상위 5%에게만 부여되는 우수 포스터상에 선정된 정경아씨는 "주석산을 처리한 타피오카전분의 소화성과 구조적 특성"을 주제로 발표해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정씨는 연구를 통해 유기산인 주석산을 이용해 저칼로리 전분을 제조하고 변형 전분의 소화성과 구조적 특성을 규명했다.

정씨가 속한 식품가공학연구소는 이창주(식품생명공학과) 교수 지도로 국제학술대회에서 6년 연속 우수 포스터상을 수상한 바 있다.

/김재훈 기자

지역 소식통

원광대병원, 심평원 폐렴 적정성 평가 1등급

원광대학교병원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폐렴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원광대병원은 이번 심평원 평가로 폐렴 적정성 분야 4회 연속 1등급을 기록하게 됐다.

이번 적정성 평가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2020년 2월 22일까지 폐렴 입원 환자 중 3일 이상 항생제를 투여한 만 18세 이상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원광대병원은 이번 평가에서 산소포화도 검사 실시율, 중증도 판정 도구 사용률, 객담 도말 처방률, 객담 배양 검사 처방률, 첫 항생제 투여 전 혈액 배양 검사 실시율, 병원도착 8시간 이내 항생제 투여율에서 전국 평균보다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김재훈 기자

군산시, 2021년 정기본 재산세 303억원 부과

군산시는 2021년 7월 정기본 재산세 133,763건, 303억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부과액 대비 29억원정도 감소한 액수로 공동주택가격 3.87%, 개별주택가격 1.23%가 상승했으나, 올해부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99억원이 1가구 1주택자 특례세율(과표구간별 0.05%p 인하)을 적용해 세액 12억원을 경감한 결과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지난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데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선박 등에 부과되고, 오는 9월에는 토지와 주택(1/2)에 부과된다. 다만, 주택의 경우 재산세 본세액이 20만원이하면 경우 7월에 전액 부과하게 된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에 방문해 납부하거나 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이체, ARS, 인터넷지로, 위택스, 모바일,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납부편의시스템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군산=고병만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

